

막말·갑질 논란 2명만... 친노 패권주의 청산 미흡

<정청래> <윤후덕>

더민주 '김종인표 첫 물갈이' 현역의원 5명 컷오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4·13 총선 후보 공천과 관련, 현역의원 탈락자 5명을 포함한 3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 청산'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현역의원 평가를 통해 10명의 공천을 배제했지만 이는 문재인 전 대표 시절 이뤄진 평가 결과의 공개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 발표가 '김종인표 첫 현역 물갈이 공천'이라고 볼 수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그동안 친노패권주의 청산과 운동권정당 문화 극복을 누차 강조했지만 지난 9일 발표된 18곳의 2차 발표 때는 현역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이런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은 친노·운동권 인사들이 일부 탈락하면서 '혁신 공천'의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도 있지만 '패권주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날 공천 배제된 정청래(서울 마포) 의원은 친노 인사이자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의원으로 분류되고, 윤후덕(경기 파주) 의원은 노무현정부의 청와대 국정교정비서관을 지낸 친노계 인사다. 하지만, 정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대표 체제 시절 최고위원을 지내다 주승용 최고위원을 상대로 '공갈 막말' 파문을 일으켰으며 윤 의원은 '말 취급 청탁 의혹'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친노패권 청산으로 구분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법진노와 86 의원의 상당수는 이를 연속 공관위 발표에서 단수공천을 받거나 경선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로 이인영·우상호 의원, 송영길 전 의원 등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단수공천을 받았고, 박

법진노·운동권 대부분 잔류 비노·중립 진영 불이익 주장 국민의당 "계파 확대" 비난

남춘·배재정·최민희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등 친노 성향 의원들도 공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운동권 출신이지만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부좌현 의원은 공천 배제됐다.

나아가 비노 진영에서는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립성향이던 이석현·추미애 의원이 경선 대상으로 분류되고,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계인 최규성 의원이 탈락했다. 강동원 의원이 탈락한 지역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박희승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친노 계파주의 청산을 요구해온 국민의당에서는 연일 공천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친노 패권주의 청산 공천이라고 평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친노 패권주의가 확대 재생산된 공천"이라며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평가했다.

당 지도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현역 공천 심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으니까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지역구 심사결과가 발표된 곳은 모두 78곳으로, 전체 지역구 253곳의 30.8% 수준이다. 현역 의원 기준으로도 초선 24명, 재선 13명, 3선 이상 13명 등 총



안철수-김종인 '어색한 만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앞줄 가운데)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김중필 전 국무총리의 정치인생을 담은 '김중필 증언록 출판 기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연합뉴스

50명의 심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당이 표적공천 대상으로 지목한 이해찬(세종)·이목희(서울 금천)·정청래·김경협(경기 부천원미갑)·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 중 3명의 공천심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서구를 천정배 단수후보 논란

국민의당 공관위 결정... 김하중 예비후보 복구를 경선 참여 권고 반발

오늘 최고위서 재점검

국민의당 공관위가 천정배 공동 대표를 광주 서구 을 지역구 단수 후보로 결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관위는 특히, 경쟁 상대였던 김하중 예비 후보에 대해 광주 복구를 지역구 경선 참여를 권고해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국민의당 공관위 관계자는 "서구 을의 경우, 천정배 공동대표를 단수 후보로 결정했다"며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김하중 예비 후보의 경선 배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상당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내일 최고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

고 있다. 6선에 도전하는 당 대표가 경쟁 후보가 있는데도 단수 후보로 결정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모 최고위원은 "김하중 예비후보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떻게 이러한 결정이 났는지 최고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중 예비후보도 "중앙당으로부터 '서구 을을 포기하고 복구를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을 들었지만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수년간 지역구를 다져온 예비 후보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타 지역구로 가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김 예비후보는 "당 대표가 술선수범 해악자 경쟁력을 갖춘 상대가 있는데도 단수 공천을 받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며 "당에 부당함을 호소했으므로 최고위에서 이성적 결론을 내려주

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천정배 공동대표는 "당으로부터 경선과 관련, 공식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공정한 공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 다시 검증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경선 후보 압축 등과 관련, 천 정청래 성향 일부 예비후보들이 면접 점수 등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것과 관련, 천 대표는 "공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지도부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들어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천 의원이 총선에서의 야권 연대 문제에 대해 안철수 상임대표에게 11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며 "안 대표의 입장에 따라 천 의원이 중대 결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민주 광주 공천방식 '차일피일'... 피 마르는 후보들

광산울만 단수 지역 포함... 전략공천 위한 '꼼수' 지적

더불어민주당 광주 공천방식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국민의당과 맞붙 다름을 벌이기 위한 중앙당의 '심사숙고'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일부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주는 10일 44개 지역의 공천방식을 발표했지만, 광주지역은 8개 선거구 중 이용섭 비대위원이 출마하는 광산구울만 '원외 단수'지역으로 포함됐다.

이 비대위원이 이들 전 경선지역으로 발표될 것으로 언급한 서구갑, 광산구갑, 복구 을의 공천방식은 여전히 발표되지 않았다.

전략공천 지역인 서구를, 복구갑 외에 공식적으로 공천 신청을 해 후보가 1명뿐인 남동구갑·을의 공천방식도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서구갑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지역에 포함됐다가 비상대책위 논의 과정에서 빠지는 등 상당한 내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비대위원은 현역인 박해자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일부 비대위원은 박해자-송갑석 경선을 요구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비대위원은 19대 총선에 이

어 두 차례나 박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주는 것은 광주 전체 선거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홍창선 당 공천관리 위원장은 지난 9일 '깜짝 유능한 젊은이' 투입을 예고한 것을 놓고 예비후보들은 또 다른 '제3의 인물' 투입에 노심초사하며 중앙당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다.

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광주에서는 더민주가 국민의당보다 양적으로 밀리는 형국이어서 이를 극복하려면 하루 빨리 공천방식이나 후보 결정이 이뤄져 바람몰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스마일 수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라식·라섹의 단점은 최소화! 장점은 극대화 한 시력교정수술

- 신경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 감소
- 뛰어난 회복속도 빠른 일상생활 가능
- 각막을 열지 않아 외부충격에 더 안전
- 만족스러운 결과, 1.0 이상 90% 시력유지
- 우수한 시력 예측, 시력예측도 가장 우수
- 더욱 또렷하고 선명한 시력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밝은광주안과

태영21 병원
TAEYOUNG 21 HOSPITAL

당뇨병-갑상선 건강강좌

좌장 · 이문규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이사장)
강사 · 김재현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총무이사)
강호철 교수(화산전대병원)
김순호 부장(광주기독병원)
김상용 교수(조선대병원, 현 당뇨병학회 수석 부총무)
양태영 원장(태영21병원, 현 당뇨병학회 일차진료 이사)

일시 · 2016년 3월 26일(토) 오후 3:30~4:30
장소 · 태영21병원 2층 세미나실
문의 · 062)362-0075(광주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태영21병원 제22회 정기 음악회
3월 18일(금) PM 6:30

광주천변로
광천사거리
신세계백화점
태영21병원
유스퀘어 터미널
백운동